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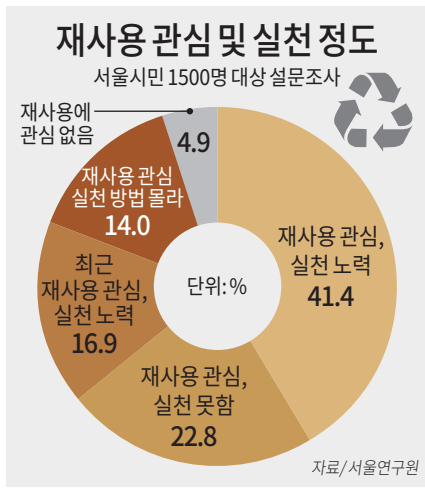
서울시민 95% 재활용 관심… “재사용 활성화 정책 필요”

응답자 45%, 중고물품 판매 경험 가구당 연간 6kg 이상 자원순환 재사용 매장 확대 설치 등 목소리

서울시민 10명 중 9명은 재사용에 관심이 있으며 절반가량은 가장 적극적인 재사용 활동인 물품 판매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고거래·나눔 같은 재사용으로 서울시 가구당 연간 6kg 이상 자원순환에 기여해 1년에 5000tCO2이 넘는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거둔 것으로 추산됐다.

이런 가운데 재사용 매장 확대 설치, 다양한 수거 체계 확충, 인식 개선 정책을 통해 서울시가 재사용 활성화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6일 서울연구원에 따르면 시에 거주하는 성인 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재



사용 관련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전체 응답자의 95.1%가 ‘재사용에 관심이 있다’고 답했다. ‘평소 재사용에 대한 관심이 있으며 실천하려 노력한다’가 41.4%로 가장 많았다.

이어 ‘평소 재사용에 관심은 있으나

실천하지 못하고 있다’(22.8%), ‘최근 재사용에 대한 관심이 커져 실천하려 노력한다’(16.9%), ‘평소 재사용에 관심은 있으나 방법을 몰라 실천을 못 한다’(14%) 순이었다. 반면 ‘평소 재사용에 관심이 없다’는 응답 비율은 4.9%에 그쳤다.

서울시민들은 재활용 배출(의류수거함), 판매, 기증·기부, 무료나눔, 수리·수선 등의 방식으로 재사용 활동에 동참했다. 특히 가장 적극적인 재사용 활동으로 여겨지는 중고물품 판매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 비율이 45.3%에 달했다. 중고물품 판매 이용경로 1위는 ‘온라인 직거래’(84.4%·중복 선택)였다. ‘중고장터’(31.0%), ‘민간 수거 업체’(19.7%), ‘자치구 재활용센터’(13.1%), ‘민간 재사용, 중고 매장’(9.3%)이 그다음이었다.

서울시내 재사용 비영리가게 95곳과 재활용센터 32곳의 규모(2020년 기준)로 환산한 자원순환 기여량은 연간 2만 5853t으로, 이를 서울시 가구수로 나눈 단위 가구당 재사용량은 연평균 6.7kg 였다고 서울연구원 연구진은 설명했다.

서울시 전체 비영리가게와 재활용센터의 재사용 성과를 살펴본 결과 자원순환 기여량을 기준으로 연간 5038tCO2의 온실가스를 줄인 것으로 추정됐다고 연구진은 덧붙였다.

서울연구원은 ▲공공 재사용 매장 설치·운영 확대 ▲수거 다양화 ▲재사용 홍보, 문화 확산을 재사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 과제로 제시했다.

연구진은 공공에서 우선 시민들에게 가깝고 안전한 재사용 거래 매장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집, 직장 등

이동 동선에 가까운 곳에 공공 재사용 매장을 두고 이곳에 판매대행 코너를 마련한다면 시민 간 거래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연구진은 조언했다.

연구진은 “국외에서는 고품질 재사용 품목 수거를 위해 이물질품 수거, 자전거 회수 서비스 등을 도입했다”며 “고객 맞춤형 수거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동배출이 어려운 품목에 대한 방문수거, 이동운반 수단 대여, 일정 시간이나 특정배출시기 맞춤 수거 서비스 제공으로 재사용품 수거체계를 다양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시민 참여를 유도하려면 보다 긍정적이고 시민들이 주목하는 신조어, 예를 들어 ‘이어 사용하기’ 같은 대표 주제를 활용한 재사용 문화 활성화 캠페인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서울시, 블록체인·IoT로 건축물 안전관리

블록체인 위험구조물 안전진단 플랫폼 기술기·균열 데이터 실시간 측정 가능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노후 민간건축물 안전관리에 블록체인과 사물인터넷 융합 기술을 도입한다고 6일 밝혔다.

현재 서울에는 안전등급이 낮아 재난 위험 시설로 지정됐거나 지어진 지 30년이 지난 노후 건축물 등이 총 824개(동)가 있다.

시는 노후 민간 건축물 안전관리에 첨단 기술을 적용한 ‘블록체인 기반 위험구조물 안전진단플랫폼’을 12월부터 가동하기로 했다.

건물에 사물인터넷(IoT) 센서를 부착해 기술기·균열 데이터를 실시간 측정하면, 블록체인 네트워크가 이 데이터를 저장·분석해 정확성을 검증하고



서울시내 위험구조물 IoT 센서 현황.

구조물의 이상 변화도 살펴 위험을 감지하는 것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위험이 발견되면 자치구나 건물소유

자에게 경보 알람이 문자로 전송돼 사전에 안전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된다.

/김현정 기자

‘따릉이’에 시민 제안 디자인 입힌다

‘포르쉐 드림 아트 따릉이’

서울문화재단은 포르쉐코리아와 함께 따릉이에 시민의 예술적 상상력을 입히는 ‘포르쉐 드림 아트 따릉이’(가칭) 디자인 공모를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포르쉐코리아 사회공헌 캠페인의 기부금을 통해 진행되는 공공 예술 프로젝트다. 이미 친숙한 공공자전거 따릉이에 시민이 제안한 디자인을 반영해 일상에 즐거움을 더하고 자전거 이용 확대에 기여하고자 마련한 프로젝트라고 시는 설명했다.

공모 주제는 ‘친환경 도시 서울을 달

리는 따릉이, 예술적 상상을 덧입다’이다. 공모 참가자들은 기존의 따릉이 차체 규격과 브랜드 CI 로고는 변형 없이 유지한 상태에서 자전거를 구성하는 차체·바퀴(휠)·안장지지대(시트스테이)·윗대(답튜브)·아랫대(다운튜브)·갈퀴(포크) 등에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디자인 아이디어를 내면 된다.

시는 총 3개의 우수 아이디어를 선정해 시상한다.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에는 각각 상금 500만원, 200만원, 100만원이 수여된다. 당선작은 7월 넷째주 서울문화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된다.

/김현정 기자

전통시장 온라인 장보기 1년간 62억 매출 달성

서울시는 ‘전통시장 온라인 장보기’ 사업을 통해 작년 4월부터 올해 4월까지 62억원의 매출을 올렸다고 6일 밝혔다.

온라인 장보기는 소비자가 전통시장에 입점해 있는 쇼핑 플랫폼(네이버 동네시장 장보기, 쿠팡이츠, 놀러와요시장)에 들어가 원하는 제품을 선택해 결제하면 최소 20분~당일 중점 앞으로 배송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서비스다.

시는 올해 온라인 장보기 참여시장을 70곳 더 늘릴 예정이다.

/김현정 기자

‘서울먹거리창업센터’ 입주 기업 모집

스타트업 25개사

서울시는 오는 25일까지 농식품 분야 창업 보육기관인 ‘서울먹거리창업센터’에 입주할 스타트업 25개사를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

시는 입주기업에 최대 2년간 사무공간을 제공하며 마케팅, 투자 유치, 전문가 멘토링, 농식품 관련 기업·유관기관 네트워킹, 입주시간 협업을 지원한다.

모집 대상은 농식품 및 연관 분야의 (예비)창업자와 업력 7년 미만의 스타트업이다. 스타트업의 경우 입주 후 1개월 이내에 서울먹거리창업센터로 사업자 등록을 진행해야 한다고 시는 덧붙였다.

이날 시에 따르면 지난 2016년 12월 개관한 서울먹거리창업센터는 4년간 141개 업체를 보육해 입주기업 누적 매출액 645억원, 투자유치 220억원, 고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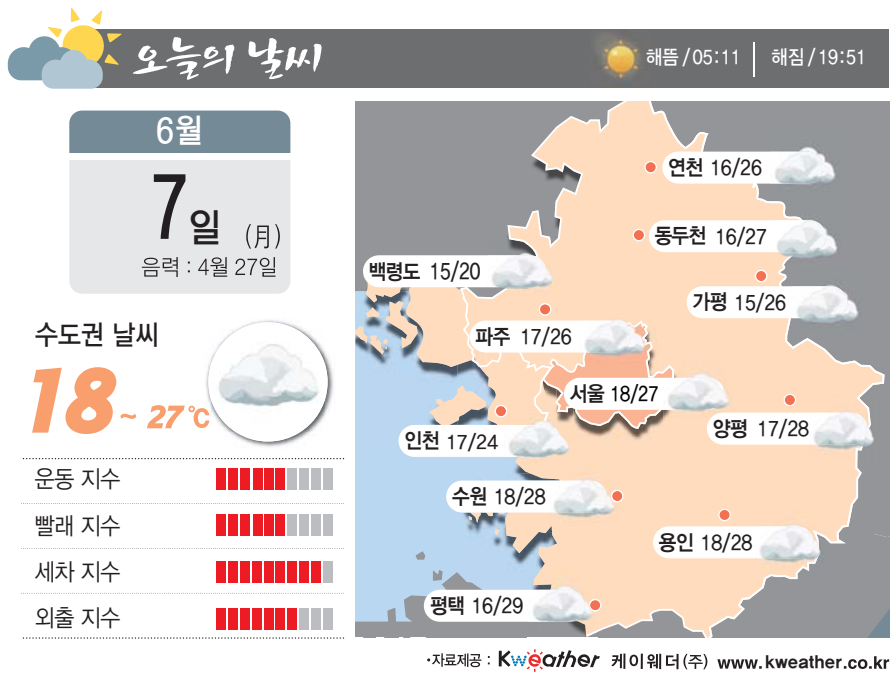
서울먹거리창업센터 입주기업 활동 모습.

/서울시

창출 526명 등의 성과를 거뒀다.

김의승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서울먹거리창업센터 입주를 통해 국내 우수 농식품 분야 스타트업들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길 바란다”며 “참신한 사업 모델을 보유한 농식품 스타트업의 많은 관심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버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美 의원단, 대만 도착… “백신 75만회분 지원할 것”
/사진 뉴시스

▲엘살바도르, 전 세계 최초로 ‘비트코인’ 법화 지정 추진

▲머스크 ‘음란 트윗’에 성인물 암호화 페 350% ↑
▲부르키나 파소에서 이슬람군이 민간인 100여명 학살



▲스리랑카, 악천후와 홍수로 10명 사망, 22만명 피해
▲태국 푸켓, 7월부터 백신접종 외국인 무격리 입국 허용
/사진 뉴시스